



미래를 여는 당신의 참여가
우리를 연결하고
지속가능한 여성과학기술인의 내일을 만듭니다.

with
KWSE



KWSE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Woman Scientists and Engineers

[34126]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12번길 20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B동 409호
T. 042-863-8310~5 F. 042-863-8313 E. kwse@kwse.or.kr H. www.kwse.or.kr



과거를 잇고
미래를 그리다

KWSE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Woman Scientists and Engineers

여성과학기술인의 보금자리를 함께 세웁시다!



여성과학기술인 회관 건립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KWSE)는 2023년 창립 30주년을 계기로, 지난 30년의 성장을 발판 삼아 향후 30년의 지속 가능한 도약을 위한 "여성과학기술인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과학기술인회관은 세대와 분야를 잇는 교류의 장이자,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우리 모두의 공동 터전이 될 것입니다. 이 뜻깊은 여정에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학기술인 회관 왜 필요한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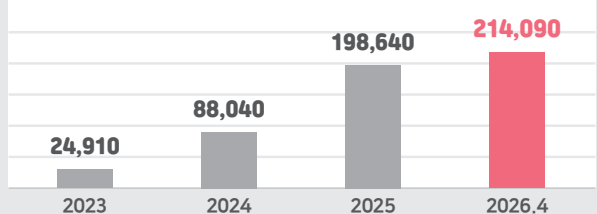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서로 연결되고 성장하는 거점이자 국내외 차세대 여성과학기술인과 고경력 여성과학기술인이 함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활동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여성과학기술인의 성장은 개인의 성취를 넘어 우리나라 과학기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힘입니다. KWSE가 만드는 여성과학기술인회관은 그 힘을 키워가는 '지속가능한 집'이 되고자 합니다.

추진현황 및 모금현황

추진현황

- 2023. 03. 여성과학기술인회관 모금캠페인 시작
- 2024. 03. 제15대 회관건립추진위원회 발족
- 2024. 12. 제32회 정기총회 추진현황 보고
- 2025. 04. 92호 소식지 여성과학기술인회관 건립 프로젝트 소개
- 2026. 01. 제16대 회관건립추진위원회 발족 및 운영

모금현황



모금 캠페인

01 모두가 참여하는 기부
1-1-1(하나의 힘) : 1인 - 매일 1만원 - 1년 기부

02 KWSE 파트너즈 : 100만원 이상 고액 기부

- 플래티늄 2,000만원 이상
- 다이아몬드 1,000만원 이상
- 골드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 실버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 브론즈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기부방법



QR코드 스캔 ○ 약정서 작성 ○ 기부금 납부

* 기부금 영수증은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자동으로 발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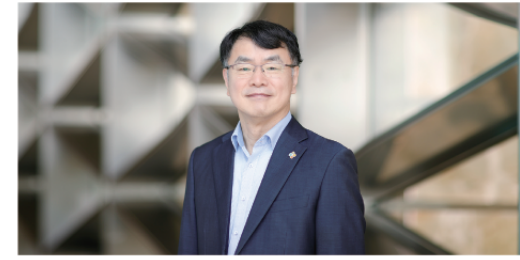
기부자 혜택

- 기부금 영수증 발급(세제 혜택)
- 여성과학기술인회관 명예의 전당에 성명 기재 등

문의처 :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사무국(042-863-8310/kwse@kwse.or.kr)

Contents

Spring, 2026 vol. 95



04 **취임사**
임채덕 | 제16대 회장_한국전자통신연구원

05 **이임사**
임혜원 | 제15대 회장_한국과학기술연구원

06 **격려사**
홍원화 |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07 **함께 피어나는 KWSE, 2026**
2026년 KWSE 연간일정

08 **여성과학기술인 과학탐구교실**
2026 KWSE 사업소개

10 **Aim High, Think Big**
김동원 | 고려대학교 총장

15 **제16대 KWSE,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갈 사람들**
제16대 운영위원 소개

24 **기술을 넘어 사람을 이해하는 힘 4인4색**
KWSE 인사이드

29 **글로벌 슈퍼 컴퓨팅 리더**
이지수 | 전 킹압둘라과학기술대학교 슈퍼컴퓨터센터장

32 **KWSE 뉴스**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KWSE 소식지

발행인: 임채덕
 편집위원장: 신영숙
 편집위원: 김양희, 김민솔, 김소희, 김영숙, 김은경, 민혜정, 서지현, 옥수현, 이지형, 조근희
 사무국: 김혜선, 민의정, 변애란, 송혜진, 최한나
 발행처: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12번길 20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B동 409호
 전화: 042-863-8310~5 팩스: 042-863-8313
 E-mail: kwse@kwse.or.kr 홈페이지: www.kwse.or.kr
 디자인: 디자인에스

표지설명 :
전통에 담긴 과학과 지혜가 미래 기술로 흐르고, 여성과학기술인의 도전과 연대가 시대를 넘어 서로를 이어주는 길을 담아낸 표지

취임사

전환의 시대, 여성과학기술인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임채덕 제16대 회장



완연한 봄기운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새싹이 더욱 강인한 생명력으로 피어나듯,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또한 새로운 도약과 혁신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16대 회장으로서 회원 여러분께 첫 소식을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대한 전환의 시대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심화, 국제 공동연구 체계의 확대, 그리고 과학기술 기반 국가 경쟁력의 재편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 환경의 변화는 과학기술계에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화가 심화되는 연구 환경 속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연구 현장의 다양성과 포용성은 더 이상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혁신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제16대 KWSE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국내를 넘어 글로벌 과학기술 네트워크 속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의 위상과 영향력을 한층 강화하는 새로운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제16대 KWSE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 중심에는 참여, 연결, 지속의 가치가 있습니다.

KWSE의 미래는 무엇보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에서 시작됩니다. 회원 한 분 한 분이 KWSE의 정책과 사업의 단순한 수혜자를 넘어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참여의 문을 더욱 넓히겠습니다. 연차대회와 정책포럼, 학술교류 프로그램은 물론,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소통 체계를 강화하여 진정한 회원 중심의 KWSE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과학기술 혁신은 사람과 사람, 분야와 분야를 잇는 연결에서 출발합니다. 세대와 전공, 학계와 산업계, 지역과 국제사회를 아우르는 다층적 네트워크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디지털 기반 협력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국제 여성과학기술인 단체와의 전략적 연계를 확대하여 회원 여러분의 연구와 경력이 더 넓은 세계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변화가 일회성 성과에 머물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KWSE의 재정 안정성과 운영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차세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과 멘토링 시스템을 체계화하여 KWSE의 가치와 성과가 다음 세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제16대 KWSE는 국제협력 확대, 회원 참여형 프로그램 혁신, 차세대 리더 육성, 디지털 소통 플랫폼 고도화, 정책 제언 기능 강화를 핵심 추진 과제로 설정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와 혁신은 회장단과 임원진들만의 노력으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KWSE의 힘은 언제나 회원 여러분의 전문성과 연대, 그리고 실천에서 나옵니다.

전환의 시대, 여성과학기술인의 미래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회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혜로운 제언이 KWSE의 다가오는 미래를 여는 힘이 될 것입니다. 제16대 회장으로서 저 또한 여러분과 함께 그 미래를 힘차게 열어가겠습니다.

함께 미래를 다시 써 내려갑시다. 감사합니다.

이임사

큰 배움과 감사, 깊은 보람의 시간

임혜원 제15대 회장



안녕하세요.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15대 회장 임혜원입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임기를 시작했던 그날의 설렘이 여전히 선명한데,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이임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과 함께한 지난 시간은 제게 큰 배움과 감사, 그리고 깊은 보람을 안겨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회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 덕분이었습니다. 그동안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의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배려,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회원 여러분께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을 확대하고, 서로의 경험과 연구가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더욱 넓히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강원지부 신설과 호남지부 확대를 통해 전국적인 연대의 틀을 견고히 다질 수 있었던 것은 뜻깊은 결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제6회 KWSE 국제융합학술대회 BIEN 2025는 잊지 못할 감동으로 남아있습니다. 현장에서 마주했던 여러분의 열정과 학술 교류의 온기는 KWSE의 저력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헌신적으로 함께해 주신 임원진과 운영위원, 그리고 사무국 여러분의 노력 덕분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애써주시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는 회장의 자리에서 물러나 다시 한 사람의 회원으로 돌아가지만 KWSE의 성장을 응원하는 마음만은 변치 않고 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새롭게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를 이끌어 가실 차기 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께도 응원과 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가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을 더욱 넓히고,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공동체로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격려사

여성과학기술인의 열정과 연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를 밝히다

홍원화 한국연구재단 / 이사장



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홍원화입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기 위해 연구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여성과학기술인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과학기술인 단체로서 지난 33년간 과학기술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온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KWSE)의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기술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대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변기 속에서 다양성과 포용성은 혁신을 이끄는 핵심 가치로 자리 잡고 있으며, 여성과학기술인은 단순한 인력의 한 축을 넘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날카로운 통찰과 끈기 있는 탐구 정신으로 뛰어난 성과를 이뤄낸 여러분의 노력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특히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성과학기술인의 권익 신장과 역량 강화를 위해 헌신해 온 KWSE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장벽을 허물고, 후배 과학자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포용적 연구문화' 정착을 위해 힘써온 시간은 대한민국 과학기술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전국 각 지부를 중심으로 결집한 2,500여 명 회원 여러분의 연대는 우리 과학기술계를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KWSE가 펼친 글로벌 리더십은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여성과학기술인네트워크(INWES)의 창립 주역이자 아시아를 대표하는 NGO로서, 국제융합학술대회(BIEN) 등을 통해 구축한 견고한 협력 네트워크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외교의 위상을 한층 높였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역량을 인정받고 있는 여러분의 활약은 차세대 여성 과학자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과학기술인 여러분, 여러분이 현장에서 일구어낸 성과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한국연구재단은 여러분이 연구에 몰입하고,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의 자세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가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구심점으로서 더욱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열정이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피어나는 KWSE, 2026

- 01 - 제1회 이사회 개최
- KWSE 제16대 분과워크숍 개최

- 03 - 국내외 여성과학기술인 연계 학술 프로그램 공고
- 여성과학기술인 국제공동연구 공고
- Smart Sister Program 참가자 모집
- 주한 여성과학기술인 리더 양성 프로그램 멘토·멘티 모집
- 과학탐구교실 운영

- 04 - 제2회 이사회(확대) 개최
- 국내외 여성과학기술인 연계 학술 프로그램 지원
- 여성과학기술인 국제공동연구 활동 지원
- Smart Sister Program 활동 지원
- 주한 여성과학기술인 리더 양성 프로그램 멘토링 팀 매칭
- KWSE 95호 소식지 발간

- 05 - 주한 여성과학기술인 리더 양성 프로그램 멘토링 운영
- 차세대 여성과학자 웨비나 발표자 모집
- 한-캐나다 여성과학기술인 웨비나 개최
- 2026 KWSE-INWES Webinar 개최

- 06 - 광역권별 워크숍 개최
- 한-캐나다 학술대회(CKC 2026) 참석 및 학술세션 개최
- 차세대 여성과학자 웨비나 1차 발표

- 07 - 제3회 이사회 개최
- 한-유 학술대회(EKC 2026) 참석
- 한-미 여성과학기술인 웨비나 개최
- 차세대 여성과학자 웨비나 2차 발표
- 정책토론회 개최
- KWSE 96호 소식지 발간

- 08 - 2026 YWS Camp 개최
- 한-미 학술대회(UKC 2026) 참석 및 학술세션 개최
- 제20회 세계여성과학기술인대회(ICWES 20) 참석
- 랜선 과학탐구교실 운영

- 09 - KWSE 회원의 날 행사 개최
- 과학융합 아카데미 개최
- 산학연 여성과학기술인 융합 세미나 개최

- 10 - 광역권별 워크숍 개최
- 디지털 아카이빙 시스템 구축

- 11 - 제4회 이사회(확대) 개최
- 제16회 INWES APNN Meeting 참석
- 광역권별 워크숍 개최
- KWSE 97호 소식지 발간

- 12 - 제34회 정기총회 및 융합워크숍 개최
- 과학탐구교실 우수소감문 시상식 개최
- 2026 대한민국여성과학기술인대회 개최
- 제22회 INWES 연례총회 참석

※ 상세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6 KWSE 사업소개

과학으로 연결되는 배움, 미래를 여는 탐구와 성장의 시간

여성과학기술인 과학탐구교실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KWSE)가 운영하는 '과학탐구교실'은 청소년들이 과학을 보다 쉽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과학문화 확산 사업으로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과학을 생활 속에서 이해하고, 스스로 미래를 그려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부터 대전광역시의 지원으로 시작되어 꾸준히 이어져 왔으며, 대전 지역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기술인들이 직접 참여해 자신의 연구 경험과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관심과 진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 주고 있습니다.



멘토링

과학탐구교실은 학교 방문 강연에 그치지 않고 실험, 멘토링, 독서 활동, 온라인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학생들은 직접 실험하고 질문하며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과학을 '배우는 것'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확장해 나갑니다. 특히 과학도서 멘토링과 랜선 탐구교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더 많은 학생들에게 과학의 즐거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개최된 '과학탐구교실 워크숍 및 우수소감문 시상식'은 사업의 의미를 더욱 깊게 보여준 자리였습니다. 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우수소감문에는 과학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의 즐거움, 미래에 대한 꿈이 담겨 있었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 과학기술인이 함께 과학문화의 가치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초청강연 여성 과학커뮤니케이터

초청 강연에는 과학커뮤니케이터 항성이 '지구를 넘어서는 꿈을 위하여'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항성은 우주를 향한 인간의 도전과 탐사의 의미를 쉽고 흥미롭게 풀어내며 학생들의 큰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 이후 다양한 민간 기업과 연구기관이 우주 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 역시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제 우주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도전할 수 있는 현실"이라며 학생들이 더 큰 꿈과 열정을 품고 훌륭한 과학자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과학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있다. 과학탐구교실은 청소년들이 그 가능성을 발견하고, 스스로 미래를 그려볼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출발점이다.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이 과학을 통해 꿈을 키우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 많은 학교와 학생들이 과학탐구교실에 참여해 과학의 즐거움과 가능성을 함께 경험하길 바랍니다. 작은 호기심이 큰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는 1교 1과학자 강연, 집중심화 강연, 움직이는 실험학습, 과학도서 멘토링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프로그램 별 상세 설명과 강연 신청은 과학탐구교실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청소년 대상 과학·진로 강연에 관심 있는 여성과학기술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주요내용



1교 1과학자 강연

한 학교당 한 명의 여성과학기술인 강연자가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과학 강연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움직이는 실험학습

강연을 통해 배운 과학지식과 연계된 실험을 통해 직접 만들어보고 눈으로 체험하여 학습 효과를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과학도서 멘토링

멘토와 멘티가 선정한 과학도서를 읽고 만나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과학도서를 통하여 과학적 궁금증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랜선 과학탐구교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여성과학기술인 강연을 듣고 실험실습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와 함께 강연을 듣고 체험함으로써 과학에 대해 더욱 쉽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과학탐구교실 우수소감문 시상식

초청 강연과 학생·강연자·학부모가 함께하는 그룹 멘토링을 연계하여, 참여 학생들이 작성한 소감문 중 우수작을 선정해 시상한다.





“Aim High, Think Big”

상상력의 한계가 곧 당신의 한계입니다



김동원 고려대학교 총장

“인류가 직면한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가 돼 달라.”

고려대학교 김동원 총장의 2026년 2월 졸업식 축하 메시지이다. 취업률과 입학 경쟁률이 대학의 성적표가 된 시대에, 김 총장은 '큰 인물'을 이야기한다.

경영학, 그중에서도 인사관리를 전공한 그는 취임 이후 여성 교수 비율을 10%대에서 20%로 끌어 올렸고, 개교 120주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약 3,200억 원의 기부금을 유치했다. 기금교수제를 설계해 산학 협력의 새 모델을 만들었으며, AI와 인간 지성의 균형을 대학 개혁의 중심축으로 삼았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오가며 중동 협력의 판도 키우고 있다.

봄꽃이 올라오는 안암동 캠퍼스에서 김총장을 만났다.

Q. 지난 2월 졸업식 축하에서 “인류가 직면한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가 돼 달라”고 당부하신 배경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요즘 학생들이 굉장히 현실적이죠. 학점 따는 데 집중하고, 소시민적인 꿈을 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면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당연해졌고, 그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학생들에게 본인의 복지나 안위만을 생각하는 데 그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전문 지식을 쌓는 동시에 나라와 인류에 기여하는 더 큰 인재가 되어야 합니다.

원래 우리 학교는 선이 굵은 큰 인물들을 많이 길러낸 곳입니다. 고려대 출신 중에는 우리나라 역사에 굵직한 획을 그은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 높은 이상을 가지고 크게 생각하도록 교육해온 역사와 전통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Q. AI 시대를 맞아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글로벌 리더십 차원에서 AI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과학자도, 학생도, 저도 AI를 많이 씁니다. 요즘은 누구나 AI를 활용하고 있어요. 시가 음악도 만들고, 논문도 씁니다. 그런데 보면 중급 수준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듣기 쉬운 음악을 만들어내고, 그럭저럭 읽을 만한 논문을 쏟아냅니다. 고급은 아닙니다. 항상 그렇듯이,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 더 고급스럽고 기계가 만든 것은 중간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AI도 아직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사람들이 그 중급 수준에 머무르면 인간의 지혜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70년 전 원자폭탄이 터진 직후 아인슈타인은 “지금 전 세계에서 기술이 인류의 지혜를 앞질렀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기술로 인류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수십만 명을 한순간에 몰살시킨 것이었습니다. 기술은 무섭도록 발전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지혜는 따라가지 못했던 거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기술의 진보와 인간 지혜 사이의 격차가 역사상 지금이 가장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큰 비극을 잉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화 ‘매트릭스’나 ‘터미네이터’처럼, 기술 과잉 상태가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옛날 항공 조종사들은 이륙과 착륙을 모두 스스로 했지만, 지금은 자동 항법 장치가 발달해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조종사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시가 섰다운되는 순간 인간의 능력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도 기본적인 계산을 잘 못 하는데, 시가 대신해 주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인간을

점점 탈기술화·탈기능화(de-skilling)시키고 있습니다. 기술의 진보는 이제 대학보다 기업이 더 잘합니다. 기업이 기술을 발전시키고, 대학은 사람을 키우고 인간의 지혜를 키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AI 시대는 대학의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길은 결국 인간의 지혜를 더욱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Q. 말씀 중에 '지식'과 '지혜'를 구분하셨는데,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식은 기술, 수학, 언어처럼 배우서 습득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인간이 가진 본능적인 판단력, 윤리, 철학 같은 것이예요. 배우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고, 배우면 더 잘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지식과 딱 맞물리는 개념은 아니지만,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지식의 대중화 시대입니다. 어디서나 지식을 구할 수 있어요. 검색 한 번으로 1초 만에 나옵니다. 예전에는 대학에 와서 교수님께 배우고 책을 찾아야 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아직 대중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를 활용해서 '지속 가능하고 인간 중심적인 미래(Sustainable and Human-Centered Future)'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시가 중심이 되는 사회는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은 시가 가지지 못한 지혜입니다. 지식은 우리가 시를 따라 갈 영역도 아니고, 굳이 그럴 필요도 없어요. 시에게는 지식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대신 인간이 갖춰야 할 것은 시가 가지지 못한 지혜입니다.

Q. 그런 철학적인 교육은 전통적인 학과 체계로는 담아내기 어렵지 않을까요?

학과 간의 담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현재 대학은 여전히 학과 체계로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급속히 해체되고 있어요. 기계공학과 교수님들이 근골격계 질환을 연구하고, 정형외과에서 기계공학을 연구합니다. 공대에서 의학을 연구하거나 암을 연구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경영학과에 새로 임용된 교수 중에 불교 철학을 공부하신 분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인문대에 계열 분이, 경영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학문 간 경계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학자들이 제도보다 더 빠르게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변화가 이뤄지고 있고, 상당 부분은 이미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Q. 총장님께서 설계하신 '기금교수제'가 큰 반향을 얻고 있습니다. 도입 배경과 운영방식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개교 120주년을 맞아 교우들께서 약 3,200억 원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학교 역사상 최고 기록이고, 대학 전체로 봐도 기록적인 수준입니다. 학교로서도 이전보다 약 2.5배 늘어난 규모인데, 기부금이 증가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기금교수제입니다.

방식은 간단합니다. 기업이 10억 원을 기부하면 그 재원으로 고려대가 교수 1명을 채용합니다. 10년 치 봉급을 기업이 부담하는 셈이죠. 그 교수는 대학 소속으로 강의와 연구를 하면서, 동시에 기업에 자문하고 사외이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윈윈하는 구조입니다.

기업은 분야를 지정할 수 있지만, 특정 인물을 지명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기업이 추천하더라도 반드시 대학 인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하고, 학문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Generative AI 분야' 혹은 '피지컬 AI 분야' 전문가를 요청하면, 그 분야에 맞는 역량 있는 인재를 우리가 찾아서 채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제 생각보다 반응이 훨씬 좋았습니다. 보험 분야처럼 교수 인력이 희소한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수요가 있었어요.

Q. 지난해 KWSE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단의 현장 탐방을 진행하셨습니다. 중동과의 협력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학교는 사우디 등 중동 지역에서 오는 학생이 가장 많은 대학 중 하나입니다. 과거부터 많은 학생들이 유학을 왔고, 중동쪽과 밀접한 네트워킹이 형성되어 있어요. 저도 최근에 사우디를 다녀왔고, 그쪽 관계자분들도 우리 학교를 방문하셨습니다.

현재는 아랍코¹⁾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대규모 연구소를 공동으로 설립하거나, 중동 학생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수요가 많은 만큼 기숙사를 건립하는 형태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석유나 국방 관련 공동연구 등 여러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고요.

1) SAUDI ARAMCO, 1933년 다란(Dhahran)에 설립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 및 천연가스 기업, 세계 50개 이상 국가와 교역 중인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2012년 계열사인 ARAMCO Korea 설립·운영 중, <https://www.aramco.com> 참조



Q. 고려대가 중동 학생들에게 특히 인기를 끄는 이유가 있나요?

우리 학교가 굉장히 자유로운 편입니다. 특히 종교적으로요. 전국 대학 중에서 이슬람 기도실이 1개 있는 곳도 드문데, 우리는 인문사회계 캠퍼스, 자연계 캠퍼스 등에 각각 기도실이 있어 총 3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개방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었습니. 할랄 푸드도 매개 제공하는 등 중동 학생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공부를 끝내고 귀국한 학생들이 본국에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전하면서 긍정적인 평가가 확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동 각국의 학생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고려대가 선호 대학으로 자리 잡게 된 것 같습니다.

Q. 고려대는 강인하고 남성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여성 교수 비율 확대 등 변화를 주도하고 계신데요, 계기가 있었는지요?

제 전공이 경영학, 그중에서도 인사관리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성 문제에 대해 오래전부터 관심이 많았습니다. 취임 이후 교무처에 목표를 설정해서, 일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채용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여성 교수 비율은 약 20% 정도로, 이전의 10%대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처장·학장·대학원장 같은 주요 보직에서 여성 비율도 5% 미만에서 지금은 약 14%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여성 교수님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도 학생의 절반이 여학생인데 이들이 보고 배울 롤모델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 지식인들을 계속 교수로 많이 채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영학과의 경우 여학생 비율이 이미 55%로 남학생보다 높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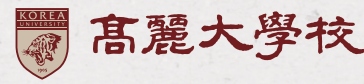
지금 추세라면 여성 교수 비율이 30%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것입니다. 최근 유학을 가거나 제자들 중에서도 우수한 여학생들이 매우 많고, 실제로 계속 여성 인재들이 교수로 채용되고 있거든요.

Q. KWSE 회원들은 고려대에 근무하거나 졸업한 여성과학자들, 석박사 과정생, 예비 학부모 등 다양한 분들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성 과학자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상상력의 한계가 자신의 한계입니다.

"Aim High, Think Big!"

아주 크게 생각하고 높은 이상을 추구하세요. 작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큰 인물이 되는 꿈을 꾸셔야 합니다. 지금은 그것이 충분히 가능한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훨씬 어려웠어요. 여성 인재의 수 자체가 적었고, 여성 교수가 한 명도 없는 학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됐고, 앞으로도 계속 나아질 겁니다. 큰 꿈을 꾸고 높은 이상을 추구하라는 것, 여성과학기술인들에게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KOREA UNIVERSITY

기금교수제 - 대학과 기업이 함께 설계하는 '지식 동맹'

총장 인터뷰에서 "기부는 일종의 협상"이라고 말한 이면에는 공들여 설계한 제도가 있다.

'기금교수제'는 기업이나 기관이 1인당 최소 10억 원 이상을 고려대에 기부하면, 그 재원으로 대학이 교수를 임용하는 방식이다. 2023년 도입 첫해 4명에서 시작해 2024년 25명, 2025년 30명, 2026년 3월 기준 누적 72명을 임용했다. 총 유치 기부금은 760억 원. 같은 기간 타 주요 대학 임용 실적이 20여 명 수준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단연 국내 최대 규모다. 영입 분야는 이공계 첨단기술에 그치지 않는다. LS일렉트릭은 국가 전력망 고도화를 위한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임용을 지원했고, 국내 주요 은행들은 디지털 금융 분야 교수 11명 임용에 기여했다. 시공테크는



김동원 총장(오른쪽)과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왼쪽) 기념 사진

AI·컴퓨터학과 교수를 확보하는 데 20억 원을 출연했다. 인문·사회과학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등록금 16년 동결이라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 기금교수제는 고려대가 인재 확보 경쟁에서 택한 가장 현실적인 돌파구다. 나아가 고려대가 단순한 교육·연구 기관을 넘어 산업과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싱크탱크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넥스트 인텔리전스 유니버시티 - AI 50 : 인문 50, 고려대가 그리는 미래 대학

"기술은 기업이 더 잘한다. 지혜를 키우는 건 대학의 몫이다."

고려대학교는 2026년 신년사를 통해 '넥스트 인텔리전스 유니버시티 (Next Intelligence University)' 구현을 선언했다. 인공지능(AI)과 인간 지성(Human Intelligence, HI)이 균형을 이루는 미래 대학 모델이다. 이를 위해 고려대는 'AI 50 : 문사철(文史哲) 50' 융합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 영입한 신입 교수 390여 명 가운데 100여명을 인문·사회과학 분야에 배치했고, 전 학과에 AI 융합 교육과정을 도입했다. GPU 기반 클라우드 인프라를 갖추는 한편, 공감·협상·비판적 사고 등 데이터를 윤리적으로 해석하는 역량을 핵심 교육 목표로 삼았다. 상징



2024 국제화캠퍼스선포식 및 외국인파티퍼티

적인 조치도 있다. 약 20여 년 만에 인문관 신축에 착수한 것이다. 전국 대학에서 인문학 관련 학과 축소가 이어지는 것과 정반대 방향이다. 연구 생태계 측면에서도 변화가 뚜렷하다. 1,460억 원 규모의 융합 분해생물학 국가연구소를 신설하고, 61개국 석학이 참여하는 국제 공동연구 플랫폼 'K-CLUB'을 운영하고 있다. 이공계 대학원생의 연구 몰입을 돕기 위해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도 선제 도입했다.

Gender Equality Plan - 숫자로 증명하는 고려대의 성평등 의지

홈페이지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배치된

'Gender Equality Plan 2025-2026'. 우연이 아니다.

고려대는 현재 여성 교수 비율 약 20%를 기록 중이다. 김동원 총장 취임 전 10%대였던 수치다. 보직 교수(처장·학장·대학원장 등) 내 여성 비율도 5% 미만에서 14%로 높아졌다. 목표 수치를 설정하고 인사 기준으로 적용한 결과다. 제도적 기반은 두 개 기구가 담당한다. '인권·성평등 센터'는 인권 보호와 피해 구제를 전담하고, '다양성위원회'는 개방성과 형평성 가치를 제도 전반에 내재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GEP의 목표는 세 가지다. ▲전 조직의 성평등·다양성 지표 제고 ▲리더십·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 참여 비율 향상 ▲차별과 혐오의 원천 예방. 실행 방식도 구체적이다. 정기적인 인적 구성 모니터링과 성평등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2024 Spring Beginning of Semester Party

전 구성원 대상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육아 부담이 큰 핵심 경력 단계 교원을 위해 어린이집도 운영 중이다. 성평등 서포터즈 '양지'는 학내 문화 변화를 아래서부터 이끄는 역할을 한다. 미시건주립대와 의 DE 글로벌 학술대회 공동 개최는 이러한 변화를 국제 무대에서 검증받는 시도다. 고려대는 이러한 제도적 노력이 우리 사회가 소극적 평등을 넘어 진정한 평등으로 도약하는 견고한 발판이 될 것이라 밝혔다.

※ 본 이미지는 간행물이 아닌,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집된 것입니다.

제16대 KWSE,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갈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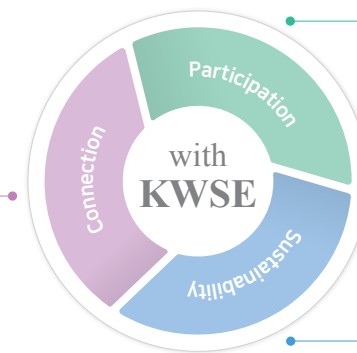
제16대 KWSE 운영위원회는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와 여성과학기술인의 더 큰 연결과 성장,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함께합니다. 참여와 협력, 소통과 연대를 바탕으로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이 더욱 빛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모아 서로를 응원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며, 새로운 시작과 더 큰 도약을 함께 이루어가겠습니다.

참여 모두가 만드는 변화의 시작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KWSE의 주체가 되어 정책과 사업에 함께합니다. 참여의 힘이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지속 다음 세대를 위한 성장의 기반

차세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과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통해 KWSE와 성과가 미래 세대까지 이어지도록 만들어갑니다.



연결 함께 잇는 미래의 네트워크

세대와 전공, 학계와 산업을 넘어 국내외 여성과학기술인을 연결합니다. 협력과 연대를 통해 더 큰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갑니다.

감사

- 예산집행 및 수행사업 감사
- 정관에 의거한 회 운영 감사



감사 김희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감사 임현의 (한국기계연구원)

총무단

- KWSE 업무 총괄 운영
- 자문위원회 운영
- 사업 총괄 관리(예산, 연구비 현장점검 등 포함)
- 위원회 간 상호협조와 활동 지원



총무이사 박지은 (한국한의학연구원)



총무이사 성정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고경력 여성과학기술인 활동센터

- 고경력 여성과학기술인의 지속적 활용 및 대외활동 지원 목적으로 2023년 개소
- KWSE 고경력 활용 기획 및 현황 분석
- 정책 포럼 운영을 통한 정책 방향 모색
-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 활용 기반 지원 확대
- 고경력 여성과학기술인 활용 현황 체계적 분석 수행



센터장 안부영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위원 강점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위원 김영혜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위원 송미영 ((주)티제이폴텍)



위원 은누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위원 이승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위원 조지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이사 최은영 (한국원자력연구원)



위원 김미순 (고경력과학기술연구총연합회)



위원 김지영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위원 신수경 ((주)파이어텍코리아)



위원 이명주 (명지대학교)



위원 장은숙 (스마트환경융합연구소)



위원 최선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회관 건립 추진위원회

- 여성과학기술인 회관 건립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실행
- 안정적인 건립 기반 마련을 위한 자원 확보 추진



위원장 김숙경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위원 김종량 ((주)행복한 지구)



위원 안미정 (충남대학교)



위원 김가영 (한국원자력연구원)



위원 성은정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위원 최선미 (한국한의학연구원)



교육학술위원회

- 여성과학자 글로벌 웨비나 운영
- 국내외 여성과학기술인 연계 학술 프로그램 지원
- 여성과학기술인 국제공동연구 인력교류 지원



위원장 황은숙 (이화여자대학교)



위원 김마리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위원 백지음 (이화여자대학교)



위원 오경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위원 이미영 (한국한의학연구원)



위원 최인희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위원 김래현 (홍익대학교(세종))



위원 안은경 (한국한의학연구원)



위원 이기현 (이화여자대학교)



위원 이정현 (국립공주대학교)



위원 양진옥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제네트워크위원회

- INWES 활동: INWES 이사국, INWES/APNN 활동
- 국제 정책 협력 활동
- 재외 한인 과학기술인 단체 협력
- 과학기술 분야 젠더 인식 지표(GISE) 고도화 추진



위원장 김효정 (부산대학교)



위원 김여원 (고려대학교)



위원 마은정 (포항공과대학교)



위원 이다영 (포항공과대학교)



이사 조성희 (한국화학연구원)



위원 김혜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위원 박혜진 (국립한밭대학교)



정책기획위원회

- 현장 수요 반영 정책 제안을 통한 제도 개선 도모
- 정책포럼 기획 및 운영
- 신규 사업 발굴 및 기획



위원장 이재방 (한국연구재단)



위원 박진선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위원 김소연 (국방과학연구소)



위원 김호민 (울산과학기술원)



위원 손명희 ((주)공감센서)



위원 우새미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위원 황두희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이사 김혜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위원 김성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위원 김주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위원 서희원 (한국과학기술원)



위원 양지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위원 이지연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대외협력위원회

- 대전시 여성과학기술인 과학탐교실 운영
- 대내외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추진
- 여성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역할 확대 및 지역사회 연계 강화
- 유관 기관 협력을 통한 과학기술 문화 확산 기여



위원장 광영실 (한국천문연구원)



위원 김수진 (한국천문연구원)



위원 박현민 (국립농업과학원)



위원 백수진 (한국한의학연구원)



위원 최한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사 김남정 (농촌진흥청)



위원 남연경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위원 배수빈 (국방과학연구소)



위원 장미혜 (연세대학교)



위원 황희진 (극지연구소)



정보화위원회

- AI 온라인허브 기획 및 구축
- 국제 여성과학기술인 플랫폼 WWST 관리
- 여성과학기술인의 정보 접근성 및 네트워크 확장 지원
- 체계적인 회원 관리 기반 마련을 위한 회원정보시스템 개선



위원장 이원경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위원 김정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위원 유초롱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위원 전은진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위원 정유리 (한국과학기술원)



위원 최현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사 김은정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위원 변수정 (국방과학연구소)



위원 장송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위원 정영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위원 정은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산학연협력위원회

- 산학연 협력 기반 구축(정부사업, 기술사업화, 특허정보 연계)
- 산업계 여성과학기술인 네트워크 확장
- 산학연 연계 협력 강화 및 성과 창출



위원장 황혜숙 ((주)서보스타)



위원 김민정 (지식재산처)



위원 윤정인 ((주)리윤바이오)



위원 정은진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위원 김미랑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위원 안정엽 (바이오앤슈티(주))



위원 윤지영 (제이와이솔루션즈)



위원 최선영 (한국폴리텍대학교 바이오캠퍼스)



회원활동위원회

- 회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회원 니즈 파악 및 의견 체계적 수렴
- 회원의 날 행사 확대를 통한 네트워크 및 소통 강화
- 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호남지부와의 협력 강화



위원장 김수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위원 김윤경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위원 류미이 (강원대학교)



위원 문진석 (한국한의학연구원)



위원 박옥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위원 손은화 (강원대학교)



위원 엄민영 (한국식품연구원)



위원 차정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위원 한경희 (한라대학교)



차세대지원위원회

- 차세대 여성과학자 글로벌 웨비나 기획 및 운영
- 주한 여성과학기술인 리더 양성 프로그램 운영
- Smart Sister Program 운영
- YWS Camp 개최



위원장 임조령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사 이선미 (고려대학교)



위원 김명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원 나하나 (인제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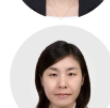
위원 박선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위원 석명은 (동의대학교)



위원 우정현 (한국원자력연구원)



위원 이우경 (한국천문연구원)



위원 정은정 (한국천문연구원)



위원 정한의 (국방과학연구소)



위원 허윤정 (한국과학기술원)



위원 임현숙 (한국원자력연구원)



홍보위원회

- KWSE 소식지 발간 (연 3회)
- KWSE 웹메일 제작 (연 12회)
- KWSE SNS 운영
- 보도자료 및 홍보자료 제작



위원장 신영숙 (국방과학연구소)



이사 김양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위원 김민솔 (이화여자대학교)



위원 김소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위원 김영숙 (한국한의학연구원)



위원 김은경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위원 민혜정 (KT&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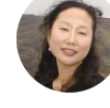
위원 서지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위원 옥수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원 이지형 ((주)더맑은환경)



위원 조근희 (대전시수의사회)



지부

- 4개 지부: 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호남
- 융합워크숍, 연구교류 세미나, 커리어 멘토링 개최
- 네트워크 확장 및 역량 강화

부산울산경남지부



지부장 장은숙 (스마트환경융합연구소)



위원 우선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위원 조혜민 (동아대학교)

대구경북지부



지부장 허향숙 (한국뇌연구원)



위원 이수진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위원 이현주 (한국뇌연구원)

호남지부



위원장 유난이 (광주과학기술원)



위원 박수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위원 박정민 (한국식품연구원)



위원 배리진 (광주과학기술원)



위원 이섯별 (국립농업과학원)



위원 임귀자 (광주여자대학교)



위원 조고미 (호남대학교)



위원 조미령 (한국광기술원)



위원 한아름 (한국원자력연구원)

강원지부



위원장 김현경 (강원대학교)



위원 구송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위원 김희정 (강원대학교)



위원 박정안 (강원대학교)



위원 서지원 (연세대학교)



위원 손선영 (상지대학교)



위원 여수정 (상지대학교)



위원 연정미 ((재)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위원 조연지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



사무국

- 본회 사업 전반에 대한 기획·운영 지원 및 행정 업무 총괄
- 대내외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관리, 회원 관리 체계 운영
- 회원 활동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및 협력 체계 구축

최한나 **실장** 사무국 운영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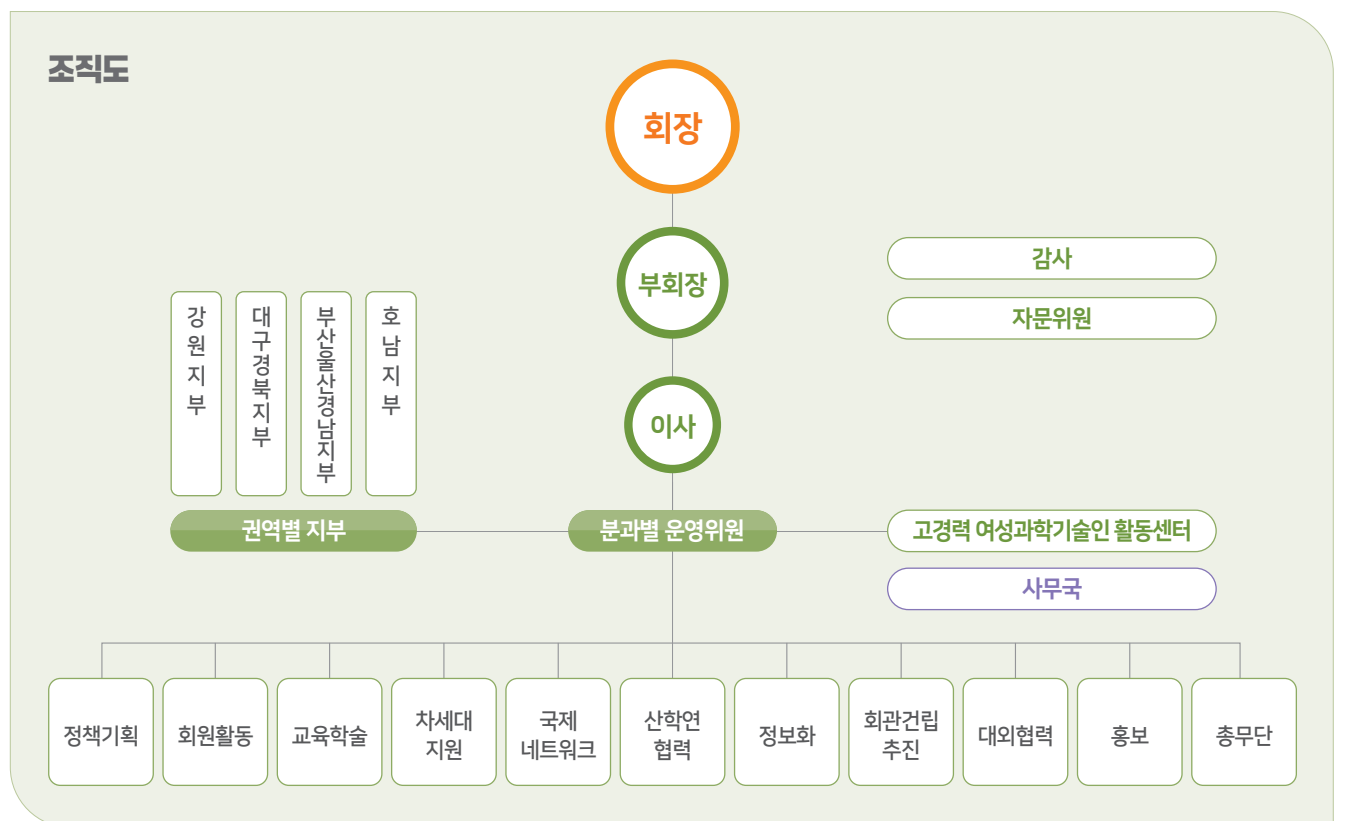
김혜선 **선임** 국제 여과기인 단체협력 (학술행사, 공동연구 인력교류 지원), 홍보물 제작, 대내외 홍보, 고경력 여성과학기술인센터

민의정 **선임** 국제 여과기인 단체협력 (YWS Camp & SSP, 재외한인 여과기인 교류, 해외단체협력 및 국제정책)

변애란 **담당** 과학문화 확산, 국내 여과기인 역량강화 사업, 지부활동 지원

송혜진 **담당** 사무행정(회계, 운영 등), 회원관리

조직도



기술을 넘어 사람을 이해하는 힘

4人4色



Q. 본인 소개와 함께 현재 담당하고 계신 업무에 대해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선중 아트텔링테크로지 대표로, 예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문화콘텐츠와 교육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명화를 기반으로 한 시 예술교육 프로그램과 메타버스 미술관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과 일반 대중이 예술을 보다 창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생성형 AI와 예술을 융합한 교육 콘텐츠와 글로벌 문화 콘텐츠 사업을 기획하며, 기술과 예술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창작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상아 저는 전기차단기 OEM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우상아입니다. 가업을 이어받아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전력 인프라 및 설비에 사용되는 차단기 제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기술 기반 제조기업입니다. 현재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과 사업 운영을 총괄하고 있으며, 전력기기 분야에서 더욱 안정적인 제품을 공급하는 제조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은하 저는 차병원 특허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성은하입니다. 차병원 및 차의과학대학교 내 연구 결과물인 기술을 특허화하고, 이들을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승속 건축설계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주)수건축사사무소의 소장 양승속입니다. (주)아키펠랜종합건축사사무소를 8년을 다녔고 함께 일하던 소장님과 함께 2002년 12월 회사를 창립했습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건축심의 및 자문 업무에 참여하고 있으며, 몇 년간 명지대학교에 겸임강사로 강의를 진행했었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한국여성건축가협회에서 운영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Q. 자신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신가요?

김선중 예술과 기술의 경계를 연결해 새로운 문화콘텐츠 생태계를 만드는 창작 기획자입니다.

우상아 저는 스스로를 '지도를 펼쳐놓고 시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딘가를 찾아가갈 때 바로 움직이기보다는 전체 경로를 먼저 살펴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는 편입니다. 아마 그래서인지 어떤 일을 하거나 상황을 판단할 때도 눈앞의 일만 보기보다는 큰 흐름과 구조 속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성은하 일개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승속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로 아직도 꿈을 꾸는 건축가입니다.

Q. 해당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이나 '태도'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김선중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역량은 융합적 사고와 끊임 없는 실험 정신입니다. 오늘날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진정한 성과는 기술 자체보다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의 삶과 문화 속에서 의미 있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예술적 감성과 기술적 이해를 함께 갖추고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열린 사고와 도전 정신이 결국 새로운 시장과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믿습니다. 기술의 경쟁력은 결국 '사람의 창의성'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상아 전력기기와 같은 제조 분야는 단기간에 성과가 만들어지는 산업이라기보다는 오랜 시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이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무엇보다 기본적인 기술과 공정을 꾸준히 쌓아가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력 설비와 관련된 제품은 안정성과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작은 부분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까지 꾸준히 쌓아가는 과정이 해당 분야에서 성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성은하 성실함과 꾸준함일 것 같습니다.

양승속 건축설계분야에서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은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만 집요하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려는 끈기가 필요할 것 같으며, 정직하면서 유연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Q. 현재 산업의 주요 변화나 트렌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과학기술인이 준비해야 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김선중 최근 산업의 가장 큰 변화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거의 모든 산업과 융합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창작, 교육, 콘텐츠 산업까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기술과 창의성이 결합된 새로운 분야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뿐 아니라 융합적 사고와 지속적인 학습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여성과학기술인들도 기술 변화에 대한 열린 태도를 가지고 다양한 분야와 협력하며 자신의 전문성을 확장해 나간다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산업은 한 분야의 전문가보다 '융합을 이해하는 창의적 과학기술인'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상아 전력기기 산업은 눈에 잘 드러나는 산업은 아니지만 사회 인프라를 지탱하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거기에 더해 최근 산업 환경을 보면 AI와 데이터센터 산업의 성장으로 전력 인프라와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도 함께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전력 설비와 전력기기의 역할과 중요성은 이전보다 훨씬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AI와 소프트웨어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러한 기술 역시 결국 전력 인프라와 같은 하드웨어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의 트렌드는 계속 변하지만 결국 중요한 본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전력기기 분야에서는 무엇보다 안정성과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여성과학기술인들도 산업의 변화를 이해



김선중 대표 / (주)아트텔링테크놀로지



우상아 대표 / 엔에스일렉트릭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각자의 분야에서 변하지 않는 기준과 가치를 놓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은하 변화에 유연한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AI 등 급변하는 시대 일하는 태도나 방식 및 방향성이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어 이러한 변화에 맞게 수용하고 변화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승숙 거의 모든 분야에서 AI의 활용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건축계도 마찬가지로 너무 중요한 화두가 된 것 같습니다. 남성과 여성을 구분할 것은 아니지만, 여성의 장점은 유연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유연한 사고를 좀 더 확장시켜나갈 수 있다면 변화하는 트렌드에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지금까지 경험하신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도전적이었던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고, 그 과정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도 들려주세요.

김선중 제가 경험한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도전적이었던 것은 예술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예술 분야와 기술 분야는 접근 방식이 달라 처음에는 서로의 언어와 관점을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전문가들과 협력하며 예술의 창의성과 기술의 가능성을 함께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교육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서로 다른 분야를 연결하는 융합적 사고와 협력의 힘이 혁신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늘 불확실하지만, 서로 다른 분야가 만나는 순간 가장 큰 혁신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상아 작년에 저희 회사가 2공장으로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운영 과정에서 생산 공간과 설비 측면에서 추가적인 확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고,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장 확장은 단순히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라기보다 공정과 설비 배치, 물류 동선, 인력 운영 등 여러 요소를 함께 정리해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공장의 생산 흐름과 공정 구조를 다시 점검하면서 어떤 설비와 공정이 새 공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하나씩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예상보다 세밀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도 많았지만, 회사 구성원들과 여러 부분을 함께 검토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현재도 계속 운영을 정비해 나가는 과정에 있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회사의 생산 체계를 한 단계 더 확장하고 정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회사의 생산 체계를 한 단계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은하 해외 기업과의 조인트벤처의 청산 및 매각 사례가 가장 큰 도전적

과제였고 많은 지식과 경험을 주었던 사례였습니다. 여러 복잡한 사안과 법률 및 계약상 이슈가 있어 공부하며 해결해야 했는데,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양승숙 30대 초반에 경험한 프로젝트입니다. 1998년에 준공한 "소공동 한화빌딩"을 준공하기 1년 반 전에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프라자호텔과 신축 빌딩, 지하 연결 보도를 연결하는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면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고, 현장에서 공사용 도면도 출수해야 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감독관으로 참여하여 건축주를 대행해 현장에 계신 여러 분야의 소장님들(거의 아버지뻘 되시는 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시간들이 너무 힘든 과정이어서 도전 과제 같았습니다.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야간 작업을 밥 먹듯이 했던 시절로, 선배들의 도움 하에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준공을 맞이했던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Q. 현재의 자리까지 오시는 데 큰 영향을 준 경험이나 가치, 또는 습관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김선중 제가 지금까지 일을 해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온 가치는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예술과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늘 새로운 흐름을 배우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교류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서로 다른 분야를 연결하려는 작은 아이디어들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습관과 태도가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호기심을 꾸준히 탐구하는 습관이 결국 새로운 길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우상아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회사를 운영하시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며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은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회사를 운영하시는 아버지를 보며 일을 바라보는 기준을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사업을 이어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회사를 운영하면서 제조업이라는 분야가 결국 현장에서의 경험과 책임감 위에서 만들어진다는 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맡은 일을 꾸준히 이어가고 책임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성은하 직접 검색하고 확인하는 꼼꼼함이 컸던 것 같습니다.

양승숙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지점을 만나게 되면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제 개인적인 모토입니다. 공동주택을 설계하다 보면 연세가 많으신 조합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경우 전문가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수준에 맞춰서 설명을 드려야



성은하 전무 / 차병원



양승숙 소장 / (주)수건축사사무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천천히 말하는 습관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전문가여도 영감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항상 감사함을 잃지 말자는 것이 좌우명이 된 것 같습니다.

Q. 여성과학기술인으로서 산업 현장에서 편견이나 장벽을 넘어선 경험, 혹은 여성의 강점(섬세함, 공감 능력 등)이 성과로 이어졌던 사례가 있다면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선중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여전히 기술 분야가 남성 중심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섬세함과 공감 능력이 새로운 협력과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술과 기술을 융합하는 프로젝트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세심하게 의견을 조율하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역할이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더 창의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시각과 공감이 모일 때 더 창의적인 기술과 혁신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아 저는 저 나름대로 제가 가진 섬세함을 바탕으로 회사를 운영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거나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는 부분에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조직 운영이나 협업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전보다 산업 현장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여성 인력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성은하 외부 기관과의 협상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의 판단과 공감은 매우 중요한 능력이고 여성으로써의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승숙 90년대 초반에 설계사무소에서 업무를 진행할 때는 여성 건축인이 정말 적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인허가를 접수하고 주무관을 만나게 되면 경리 아가씨로 오해를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자가 일찍부터 현장에 오면 재수 없다고 현장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계자로서 굽히지 않고 유연성을 갖고 공감 능력을 발휘하여 지속적으로 응대해 나가다 보니 시간이 좀 소요되긴 했으나 성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 주상복합을 설계할 때는 여성 건축사가 설계를 진행하니 주방에 대한 설계 등이 좀 더 섬세하게 진행되어 만족스럽다는 피드백을 받았었습니다.

Q. KWSE가 산업계에서 활동하는 여성과학기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파트너가 되기 위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 제안해주세요.

김선중 KWSE가 산업계에서 활동하는 여성과학기술인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연구·기술 분야와 산업 현장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플랫폼 역할이 더욱 강화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다양한 분야의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서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면 새로운 연구와 산업 프로젝트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젊은 여성과학기술인들에게 멘토링과 교류의 장을 제공한다면 미래 세대의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결과 협력의 네트워크가 여성과학기술인의 가능성을 더욱 크게 확장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아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서로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눌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는 연결 역할을 해 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연구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일하고 있는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경험을 접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다양한 분야의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서로 연결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 준다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은하 과학기술계는 나름 고학력 종사자들이 모인 집단임에도 차별이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여성과학자들의 성공사례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양승숙 과거에 비해서 산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연차에는 많은 여성기술인들이 포진되어 있지만, 관리자 직급을 보게 되면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젊은 여성 기술인들에게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멘토들을 발굴해 보여줄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멘토-멘티 관계가 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국경을 넘어 연구 생태계를 일군 글로벌 슈퍼컴퓨팅 리더

인터뷰

이지수 전 킹압돌라과학기술대 슈퍼컴센터장

HPCWire 35 LEGENDS 2025

| | | | | | | |
|--|---|--|---|---|--|---|
| Thomas Lippert Architect of Europe's First Exascale System | Dieter Kranzmueller Germany's Supercomputing Leader | Ralph Roskies Co-founder of PSC | Michael Levine Co-founder of PSC | Susan Gregurick Architect of NH HPC/Data Strategy | Richard Tapia Early Champion of Diversity in HPC | Mateo Valero Cortes Spain's Vanguard of European HPC |
| Bronson Messer II Frontier Science Leader | Michela Taufer Champion of Reproducible HPC | John Shalf Champion of HPC-Hypercale Convergence | Kristel Michielsen Trailblazer of Quantum-HPC Convergence | Jeff Vetter Architect of GPU-Accelerated HPC | Lori Diachin Leader of the Exascale Computing Project | Stephen Streifler Exascale Visionary at ORNL |
| Tom Lange Industrial HPC Evangelist and Innovator | Keith Gray Pioneer of HPC in Oil & Gas | Kenichi Miura Vector Computing Pioneer | Carl Kesselman Pioneer of Grid Computing | Cherri Pancake Founder of SIG-HPC and Diversity Advocate | Don Becker Co-inventor of Beowulf Clusters | Gary Grider Godfather of Parallel File Systems |
| Vinton Cerf One of the Fathers of the Internet | David Bader Linux-Cluster Trailblazer | Wu Feng Co-Founder of Green500 | Ian Buck Inventor of CUDA | Horst Simon HPC Benchmark Pioneer and Exascale Visionary | Satoshi Sekiguchi Architect of Japan's AI Supercomputing | Trish Damkroger Lifetime Leader in Public and Private HPC |
| Debra Goldfarb First to Define and Quantify the HPC Market Opportunity | Michael Heroux Open Source HPC Software Pioneer | Eyal Waldman InfiniBand Interconnect Visionary | Bob Borchers Architect of U.S. NSF Supercomputing Initiatives | Beverly Clayton The First Woman to Direct an HPC Center (PSC) | Lisa Su Leader of AMD's Exascale Era | |

Jysoo Lee
Supercomputing Strategist for Korea and Saudi Arabia

HPC wire 선정 "2025년 35인의 슈퍼컴퓨팅 레전드" (자료출처 : <https://www.hpcwire.com/35-hpc-legends-jysoo-lee/>)
※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집된 이미지입니다.

어떤 과학자는 발견을 남기고,
어떤 과학자는 더 큰 발견이 가능하도록
연구의 기반을 넓힌다.

이지수 박사는
그 두 길을 동시에 걸어온 인물이다.

그는 한국에서 슈퍼컴퓨팅의 기반을 닦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세계적 슈퍼컴퓨팅
인프라와 연구 공동체를 이끌었다.

2025년 HPCwire가
그를 '35 HPC Legends'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슈퍼컴퓨터를 단지 빠른 연산 기계가 아니라
국가의 전략 자산으로 바꾸는 일,
그것이 지난 수십 년간 그가 해온 일이었다.



2016년, 이지수 박사는 사우디아라비아왕국(이하 사우디)의 킹압둘라과학
기술대학교(이하 KAUST)¹⁾에서 슈퍼컴퓨팅 조직을 맡아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낮선 중동, 신생 대학, 거대한 투자, 그리고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사용자
생태계. 기대와 불확실성이 동시에 놓인 자리였다. 그 와중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 학교의 분명한 투자 의지였다고 한다.

KAUST는 2009년 설립 원년에 당시 세계 14위의 슈퍼컴퓨터 샤한-1(Shaheen²⁾)
을 도입했고, 2015년에는 세계 7위 수준의 샤한-2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었다. 여기에 세계적 수준의 과학적 가시화 시설³⁾까지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슈퍼컴퓨팅의 성패는 언제나 장비 그 자체보다, 그것을 실제 성과로 연결하는
연구 문화와 운영 체계에 달려 있다. 이지수 박사가 본 것은 화려한 인프라만이
아니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가능성이었다.

그가 사우디에서 맡은 일은 단순한 센터 운영이 아니었다. 뛰어난 시스템을
살아 움직이게 만들 연구자 공동체를 키우고, 다국적 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을
하나의 전략 아래 묶고, 대학 안의 자산을 국가 연구와 산업의 기반으로 확장
하는 일이었다. 처음 두 개 팀으로 출발한 조직은 9년 뒤 네 개 팀으로 확대됐고,
KAUST 교수진 가운데 샤한 시스템 활용 비율이 10%대에서 60%대로 대폭
늘었다. 이후 KAUST의 슈퍼컴퓨터는 20여 개 기관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확장됐고, 그중에는 11개 대학, 3개 산업체, 4개 정부기관이 포함됐다. 한 대학의
슈퍼컴퓨터가 국가적 혁신 인프라로 전환된 것이다.

가장 상징적인 성과는 사우디 아람코와의 협업에서 나왔다. KAUST의 샤한-2
는 사우디 아람코의 초대형 저류층 시뮬레이션을 지원해 세계 최초의 조 셀급
계산을 가능하게 했고, 3개의 세계 기록을 세웠다. 슈퍼컴퓨터는 흔히 연구실
안의 기계로만 여겨지지만, 이 성과는 계산 능력이 곧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지수 박사가 사우디에서 만든 것은 단지 빠른 연산
환경이 아니라, 과학기술과 산업이 만나는 전략적 접점
이었다.

그의 커리어가 더욱 인상적인 이유는 이러한 성취가
우연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는 이미 한국에서 한국과학
기술정보연구원(KISTI) 슈퍼컴퓨팅센터를 이끌었고,
국가 슈퍼컴퓨팅 진흥 법제와 조직 구축에 핵심 역할을
해왔다. 슈퍼컴퓨팅 분야의 대표적 언론인 HPCwire는
그가 한국의 국가 슈퍼컴퓨팅 진흥 체계를 만드는 데

1) King Abdullah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세계적인 대학교를 벤치마킹하여 2009년 9월 제다 인근에 설립된 사우디아라비아의 과학기술 대학원.
(자료출처) <https://www.kaust.edu.sa/en/about/>
2) 아랍어로 송골매를 뜻함
3) 대표적인 장비로는 6면 전체 몰입형 가상현실 환경 및 40개의 화면을 연결한 극고해상도 멀티 디스플레이가 있음.

사우디가 모셔가는 한국의 '슈퍼컴 도사'



2016년 당시 정부출연연구소에서 해외로, 특히 사우디로 연구자가 자리를 옮기는 것은 언론의 주목을 받을 정도로 드문 일이었다(조선일보 2면, '16.05.27).



도입위원회 위원들의 샤한-3 슈퍼컴퓨터 설치완료 축하('23.11.14).
앞줄 오른쪽 세 번째가 필자, 오른쪽 4번째가 Tony Chan 당시 KAUST 총장



KAUST의 샤한-3가 중동의 가장 강력한 슈퍼컴퓨터로서, 중동을 위한 과학적 발견과 AI 혁신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 것임 (사우디가제트, '22.09.22.)

기여했고, 국가 차원의 첫 5개년 마스터플랜의 토대를 닦았다고
소개하였다.

다시 말해 이지수 박사는 좋은 장비를 운영하는 관리자에 머문 적이
없다. 그는 계산 인프라가 국가 경쟁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제도, 조직, 문화까지 함께 설계해 온 과학기술 리더이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진정한 명성은 오랜 시간 동료 및 공동체의 평가
를 통해 공고해진다. 그런 점에서 이지수 박사는 이미 국제 무대에서
충분히 인정받고 있다.

그는 2022년 아시아 최대 슈퍼컴퓨팅학회(Supercomputing
Asia)로부터 HPC⁴⁾ Leadership/Achievement Award를 수상
했는데, 이는 아시아 HPC 커뮤니티에서 리더십과 기여가 탁월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2025년에는 글로벌 반도체기업인 AMD
의 리사 수와 더불어 HPCwire가 선정한 'HPC 35인의 레전드'에
이름을 올렸다. 2018년 동 언론의 '주목해야 할 인물(HPCwire
Person to Watch)'에 선정된 지 7년 만의 일이다. HPCwire는
그를 한국과 사우디에서 슈퍼컴퓨터를 국가 자산으로 바꾼 인물로
소개했다.

그는 이제 그간 쌓아온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사회 변화
를 만드는 '기술 봉사'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그간 언론
과의 인터뷰에서 개발도상국과 비영리 부문에서 슈퍼컴퓨팅과 AI
생태계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빠른 계산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그 기술을 누구
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은 여전히 사람의
몫이다.

한국에서 제도를 만들고, 사우디에서 생태계를 세운 뒤, 이지수
박사는 이제 기술의 사회적 쓰임이라는 더 큰 질문 앞에 서 있다.
그래서 그가 보낸 사우디에서의 9년은 단순한 해외 근무가 아니라,
과학기술 리더십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소중한 자산이다.

4) High Performance Computing, 고성능 컴퓨팅, HPC 컴퓨터 시스템은 고속 처리 능력,
고성능 네트워크, 대용량 메모리를 통해 방대한 양의 병렬 처리를 수행

KWSE

NEWS

KWSE 제33회 정기총회 및 융합워크숍

2025년 12월 4일(목)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컨벤션홀



제33회 정기총회 및 융합워크숍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컨벤션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임혜원 회장, 최수진 국회의원, 김영식 이사장을 비롯해 부하령 11대 회장, 윤혜은 12대 회장, 임호숙 13대 회장, 주성진 14대 회장 등 전국 여성과학기술인 70여 명이 참석하였다.

임혜원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김영식 이사장(국가과학기술연구회),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축사, 제2회 코스맥스 여성과학기술인상 시상식, NST 이사장 표창,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제9회 공로상 및 표창장 시상식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어 '시로부터 배우는 건강한 뇌'를 주제로 임혜원 회장(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강연이 진행되었다. 임 회장은 뇌의 기본 구조와 특징을 설명하고 건강한 뇌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뇌질환의 여러 종류 중 특히 치매 치료제 개발 연구 동향을 제시하며 기존 정설과 달리 뇌의 해마 부분에서 재생이 이뤄진다는 성과를 소개하였다.



슈퍼에이저 등 사례를 바탕으로 오감을 활용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자극을 계속 입력하여 뇌 신경망을 강화하면 인지예비력을 기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건강한 뇌 유지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소개하였다.

끝으로 제33회 정기총회에서는 제32회 정기총회 회의록을 접수하고 2025년 사업보고, KWSE 지부활동보고, 제16대 회장선출 결과 보고가 이어졌다. 의결안건으로는 2025년 중간결산 승인,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제16대 이사 승인, 제16대 감사 선출이 있었다.

| 수상명 | 수상자(소속) |
|----------------------------|---|
| KWSE 제9회 평생공로상 | 김정선 총괄부총장(동서대학교) |
| KWSE 제9회 공로상 | 황은숙 교수(이화여자대학교) |
| KWSE 표창장 | 김가영 책임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 |
| | 김윤경 책임연구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 |
| | 오경진 책임연구원(한국생명공학연구원) |
| | 조소혜 책임연구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 |
| NST 이사장 표창장 | 이경숙 선임연구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 제2회 코스맥스 여성과학기술인상 (차세대 부문) | 이현주 교수(한국과학기술원) 장미희 책임연구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 |
| 제2회 코스맥스 여성과학기술인상 (리더십 부문) | 김현옥 책임연구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 |

KWSE 제16대 분과 워크숍

2026년 1월 20일(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대강당

제16대 분과워크숍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16대 이사진 및 운영위원 50여 명이 참석하여 각 분과별 업무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발표에는 교육학술위원회, 국제네트워크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산학연협력위원회, 정보화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차세대지원위원회, 홍보위원회, 회관건립추진위원회, 회원활동위원회 총 10개 위원회와 강원지부, 대구경북지부, 부산울산경남지부, 호남지부 4개의 지부, 그리고 고경력여성과학기술인 활동센터가 참여하여 분과 소개와 함께, 2026년 구체적인 업무 추진 계획 및 본회 회원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해 공유하였다.



16대 분과위원회에서 이번 워크숍에서 제안된 다양한 아이디어와 추진 계획을 바탕으로 회원들과의 소통 창구를 더욱 넓히고 모든 구성원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KWSE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2026년 제1회 이사회 개최

2026년 1월 20일(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회의실

보고안건
2025년 제4회 이사회(확대) 회의록 보고 / 제33회 정기총회 개최 보고 / 제16대 분과위원회 구성 / KWSE 2025년도 주요사업 / 여성과학기술인회관 건립기금 모금 캠페인 / 16대 임원취임 승인

의결안건
2025년도 최종결산 / 회원인준 / 제16대 운영위원 승인 / 명예회장 추대 / 2026년 정기이사회 개최

협조 및 공지사항
제16대 임원 명함 제작 / 2026년도 재외한인과학기술대회 및 INWES 행사 개최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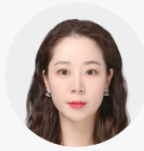
KWSE NEWS

KWSE 회원동정

수상 “축하합니다.”

배운 것을 현장에서! 수기 공모전 장려상 수상

권기혜 (주)팜코엔지니어링 / 차장



국토안전교육원에서 수강한 시설물안전법 및 지하안전법 교육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노후 공동주택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결로 문제를 단순한 민원 대응이 아닌, 법령에 기반한 사전예방적 관리 관점에서 분석하고 현장에 적용한 점이 의미 있게 받아들여진 것 같아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현장에 적극 적용하여 시설물의 장기적 안전과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UST주최 우수교원(공적상) 수상

이수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센터장



UST 총장상 우수교원(공적상)을 수상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KIGAM스쿨 대표교수직을 수행하며 특히 여학생들에게 귀감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UST의 교육과 연구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여학생들이 UST에서 핵심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실히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소속기관과 UST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출연(연) 조직문화 혁신 분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상 수상

김양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책임행정원



출연(연) 조직문화혁신 분야에서 NST 이사장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개인적인 관심에서 출발한 민화를 통해 2026년 NST 캘린더와 연하장 디자인을 창작해 기부하며, 기관 간 소통과 유대를 예술적으로 표현했던 작은 시도가 이렇게 의미 있는 상으로 이어져 더욱 뜻깊게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작은 변화가 조직에 긍정적인 울림이 되어 더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수상

조효진 한국재료연구원 / 선임행정원



한국재료연구원 정책·전략 수립 분야의 성과를 인정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게 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책·전략은 기관의 방향을 설정하고 국가과학기술의 길을 설계하는 중요한 역할이라는 점에서 늘 책임감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책 전공자는 아니지만 과학기술을 이해하는 전공자의 시각이 중요하다고 믿으며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과학기술 전공자들이 정책·전략 분야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기여하길 기대하며, 저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안 우수 유공자 포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표창 수상

김도연 주식회사 세라 / 대표



기술 보호 선도기업 우수 표창자로 선정되어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기업의 정보보호와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온 임직원 모두의 노력과 협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기업의 보안은 단순한 관리 수준을 넘어 기업 경쟁력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 역시 보안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안전한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보안 역량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보안 수준 향상과 안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가입 “환영합니다.”

- | | | | |
|--------------|----------------------|----------------------------|-----------------|
| 김래현 흥익대학교 | 곽진선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 임소연 동아대학교 | 이정현 국립공주대학교 |
| 김성애 남서울대학교 | 서지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전은진 국가녹색기술연구소 | 임귀자 광주여자대학교 |
| 김윤영 서울대학교병원 | 연정미 (재)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 조고미 호남대학교 | 허세빈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 박현민 국립농업과학원 | 옥수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최인희 Institut Pasteur Korea | 황희진 극지연구소 |
| 백수진 한국한의학연구원 | 이기현 이화여자대학교 | 최현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석명은 동의대학교 |
| 백지웅 이화여자대학교 | 서지원 연세대학교 | | |

※ KWSE 회원은 입회원서 제출 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이 됩니다.

KWSE 회원동정

인사 “축하합니다.”

- | | |
|-------------------|--|
| 강주희 (웨이브센스) | 대표이사 취임(2025. 12. 1.) |
| 김정선 (동서대학교) | 부산디지털대학교 제7대 총장 선임(2026. 1. 26.) |
| 박현정 (상지대학교) |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생명공학과 이직(2026. 3. 1.) |
| 박혜진 (국립한밭대학교) | 국립한밭대학교 화학생명공학과 이직(2026. 3.) |
| 백 란 (호남대학교) | 주)GROWIN, CTO 이직(2026. 3. 1.) |
| 서은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 위원 위촉(2026. 2. 2 ~ 2028. 2. 1.) |
| 안부영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AI 분야 자문위원 위촉(2026. 2. 1.) |
| 오경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대사제어연구센터장 승진(2026. 2. 1.) |
| 최 선 (이화여자대학교) | 한국유기합성학회 차기 회장 선출(2026. 1. ~ 2026. 12.) |